

시각장애인이 학습하는 경험 을 리디자인하다.



삼각김밥

2018102095	김명철
2018102121	유창현
2018102143	주창돈

해결책

시각장애인들이 그들의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직.

음성 녹음, 사진 촬영 등 시각장애인들이 가지는 불편한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채팅 서비스 내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FACETIME을 활용한 실시간 문제해결방안.

소개

시각장애 공동체가
답입니다.

+

시각장애인 학습지원

기능 변경

chatting service – chatting service

Voice memo & Photo - Facetime

Time line

Catting service 와 Voice memo & Photo 중복

Task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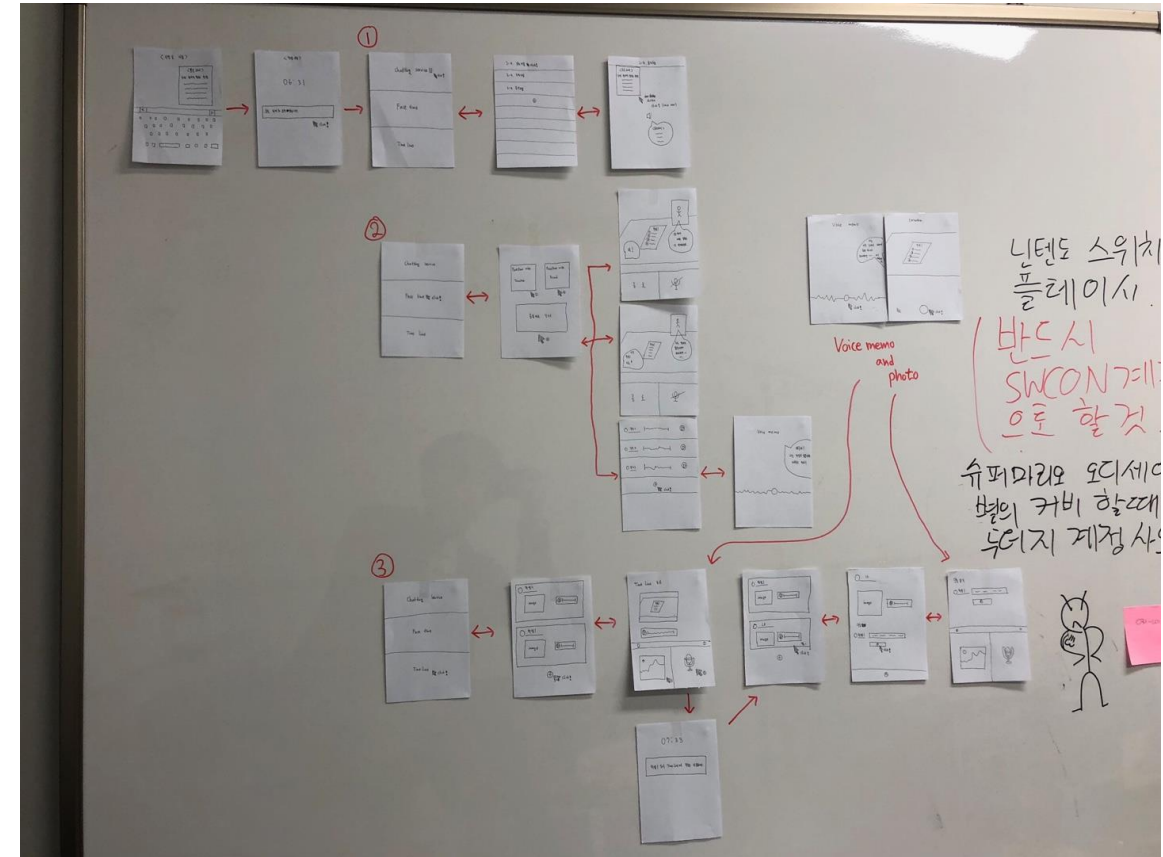
과제 제출하기(과제 확인하기)
Chatting Service(단순)

모르는 문제 선생님, 친구와 토론하기(공동체)
Facetime(보통)

제출한 과제 서로 평가하기
Time Line(복잡)

Low - fi 프로토타입 구조 (Before)

- 시각장애인 학교 방과후 수업이라 가정.
 - 초기스크린을 기준으로 학습절차에 따라 task가 각각 쓰이는 형태.
- 선생님과 학생들의 글을 쓰는 방법 구별.
-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테스트, 피드백)



시각장애인들은 실제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나요?

[illegible]

Chatting service가 뭔지 잘 모르겠다. 휴대폰의 보이스 채팅 어플인지, 웹 사이트에서 웹캠과 마이크를 이용한 집단 채팅 기능같은 것인지 모르겠다.

	A	B	C	D	E	F	G	H	I	J	K
1	실시간 입이 과제 수행 중 진행 점은 무엇인가?	실시간 입이 과제 수행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실시간 입에 관련된 점을 하나 적어주시겠어요?								
2	내용에 연관성 노리상이 돋보인다.	스토리보드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면 좋을 것 같다	참여자와의 소통에 문제는 없었나?								
3	지난 과제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과제 수행 방향을 설정한 점	프로토타입이 잘 보이지 않았다.	참가자는 어떻게 모집하였나요?								
4	소개 부분이 간결하고 보기 좋다.	이미 발표자료 ppt를 문제시며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기능이 중복되었다.	보이스 예로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5	테스트를 상황에 맞게 융통적으로 변경한 점이 중요하다.	ppt에서 테스트 흐름도가 잘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다.	지치체 혹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전용 앱이요?								
6	지난 과제에서 얻은 점을 보여준 점이 중요하다.	테스트 참가자가 어룡의 실제 사용자인 시각장애인 이 아니다	사용자와 프로토타입 테스트 참가자가 달라서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가요?								
7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문제점을 한 파악하여 중요하게 디자인하였다.	ppt가 너무 단조로웠다.	사용자 신청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8	발표 ppt가 깔끔하였다	task가 사용자의 관점에 적절했겠다. (시각적인 불편함을 해결하며 학습하는 것보다 공동체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화면과 facetime등 시각적인 부분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으로 보아 여 아룡을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것은 어떤지 알은거								
9	PPT가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졌다.	프로모 리딩이 잘 보이지 않았다.	Task를 바꾸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나요?								
10	PPT의 흐름이 좋아 기록성이 좋았다. 지난 과제에서 설정한 단계를 설명해 리더한다 해주느 것이 삼실했고 좋았다.	컨설팅 스케자터 네스캐저를 자세히 볼 수 없어서 아쉬웠다.	테스트 참가자가 실제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세한 피드백을 받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면 점은 어떻게 해서 생각한건가요?								
11	프로토타입이 좋았다.	테스크가 명확하지 않았다.	였다.								
12	테스트 진행 방식	프로토타입을 보고 원지 할지 실험	앞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는지								
13	지난 과제를 수행하면서 더 나아가야할 점을 언급하면서 발표를 진행하였다. 시각장애이라는 사용자를 고려하여 voice over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받았다.	문도, 스미트, 페스터 등의 기능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하게 쓰일려면 어떻게 해야하느지는 궁금하다. (앞으로 고민해야할 과제를 확인 것 같다.)									
14	내용적 이해도를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다.	low-h 프로토타입의 사진이 잘 안보였다. 하지만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프로토타입을 실제로 사용해 보고 싶다.								
15	자신의 팀에 찬성함과 아쉬웠던 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발표자료에서 스토리보드의 완성도가 잘 안보였다는 것이 실책이었었다.	용지가 시각장애인에게 어려웠던 점만?								
16	task별로 프로토타입을 잘 만든 것 같다.	사진에서 프로토타입을 잘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시각 장애인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7	목표를 간결하게 잘 나타내었다. 프로토타입을 잘 제시하고 신청 기준을 간결하게 잘 보여주었다. 프로토타입이 구체적이다. 설명 방법과 당당함 잘 나타내었다.	LowH 프로토타입을 잘 설명하였지만 잘 보이지 않는다. 프로토타입을 한꺼번에 찍어서 잘 안보였다. 작가가 시간이 스케치를 볼 수 없었다. 컨설팅 스케자터 사진이 잘 보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								
18	이전에 진행했던 assignment를 잘 활용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	기능들이 여러 기능들로 분화되어있어서 실제 연을 할 직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보인다.	신청자의 피드백은 어떤 했나요? 참가자 도팅 열?								
19	Task를 일하게 변형한 점이 중요하다.		앱을 어떻게 구현할것인지 경계능은 것이 인가요?								
20	이번 과제에서 설정했던 질문을 다시 한해주었던 점이 중요하다.		본인 의견								
21	프로토타입이 구체적이고 흐름을 파악하기 좋다										
22	이란 피드백을 잘 반영하였다. 장단점을 잘 분석했다.										
23	사용자 피드백을 고려한 Task조정										
24	이후의 계획은 잘 만들어졌어요.										
25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플리케이션 구성 방식을 바꾼 점.										
26	Low-H prototype의 구조를 잘 나타낸 것 같다.										
27	종이에 브레인 스토밍, 플로우 및 방식으로 잘 진행했다.										
28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할 때 역할분담을 잘 나누었다. 지난 과제에서 장문된 다용안례를 생각해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 좋았다.										
29	프로토타입을 잘 만들었다. 눈으로 잘 됐다.										
30	열심 열심히 한 것 같다. 실제 어룡과 만났어지면 좋을듯										
31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이해하고 또다른 기능을 제작함										
32	설문조사를 한 점이 마음에 들었다.										
33	Task흐름이 명확하고 기존 속내부터 있는 어룡을 사용해서 만들 어룡에 반영한 점.										
34	low-h를 질문에 붙여서 전문을 명확하게 잘 나타냈던 것 같다. 이전단계와 연결해서 프로젝트의 흐름을 잘 아니거나 고 있는 것 같다.										
35	피드백 통해 Task를 확장한 점이 중요하다										
36	픽쳐 브리더, 피커라 구분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시그니처 컬러로 판권제와 소색품을 활동해도 좋을 것 같은 정도로 어룡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 전체적으로 피커라가 깔끔하고 강조 색이 있어서 현상에 내용이 잘 들어온다. 발표 자료 구성이 매우 좋은 것 같다. Task 역시 유저에게 평범한 스캐자터 나네스캐저의 이미지까지 너무 앞서서 잘 안 보인다.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피드백 분석(아쉬운 점, 궁금한 점)

- 앱 사용 대상자: 저시력자
- 아직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 평소 시각장애인들의 학습방법?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 같다.
- 기존 task 설정(해결법)?

지난 과제에서 설정한
다음 단계는?

아직 조금 더 전체적으로
간소화해야 할 필요성.

시각장애인을 대상: 간편하고 쉽게 작동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중요.

Medium – fi 프로토타입 구조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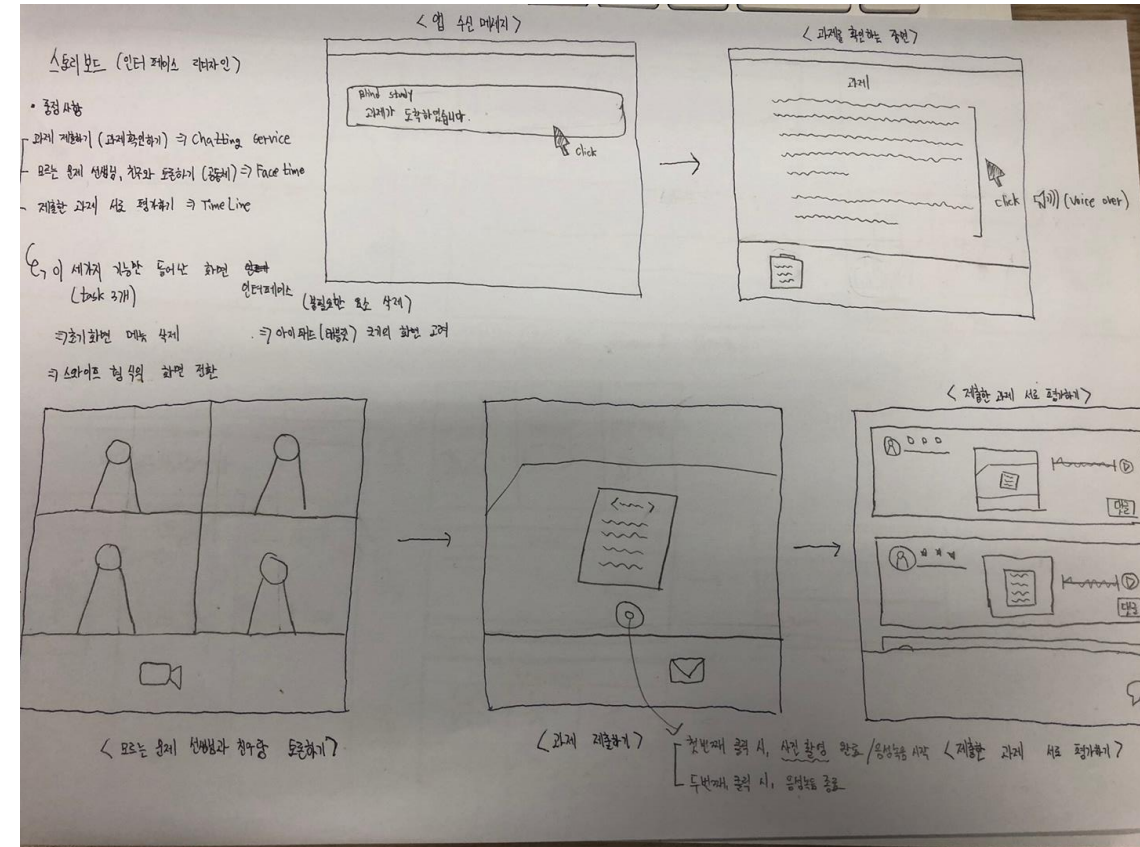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삭제

-chatting service – facetime – timeline
과정을 초기스크린 없이 바로 넘어가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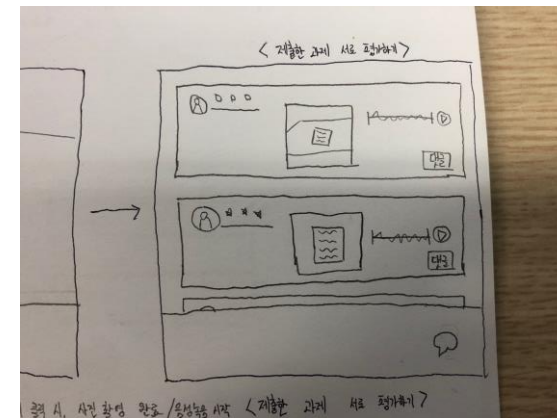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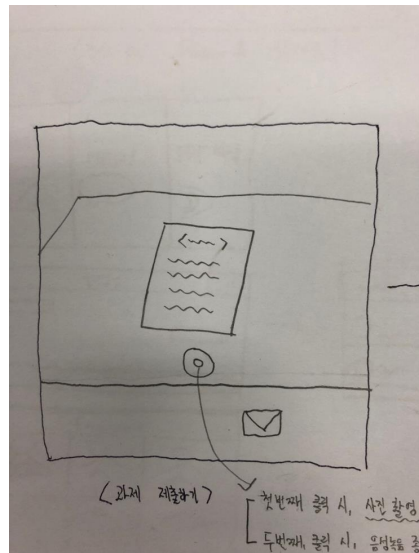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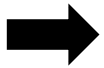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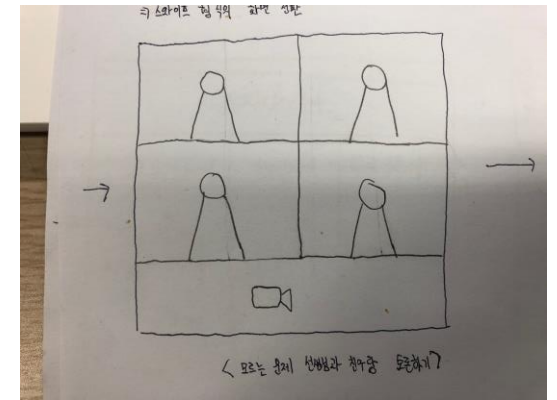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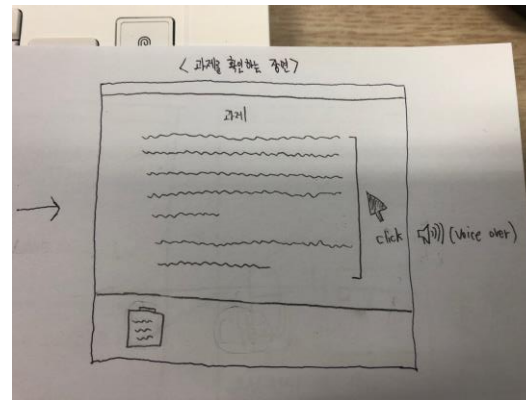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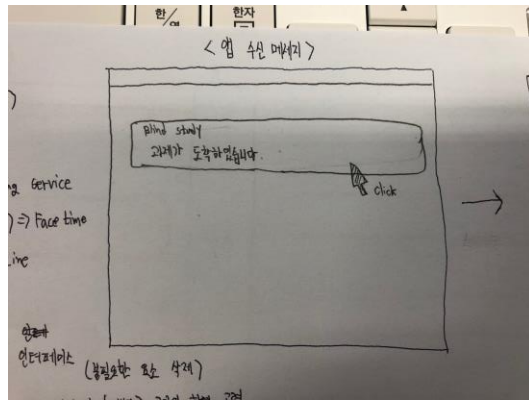
-선생님과 학생들의 글을 쓰는 방법 구별하지
않음.

-스와이프 형식의 화면 전환

-아이패드(태블릿) 크기의 화면으로 설정



Medium – fi 프로토타입 구조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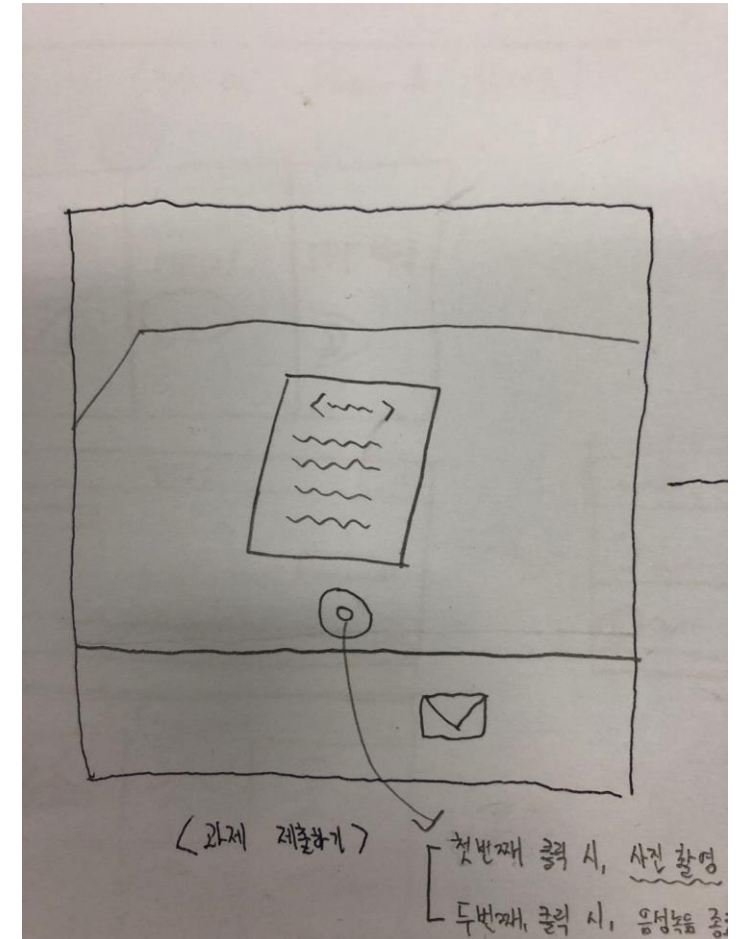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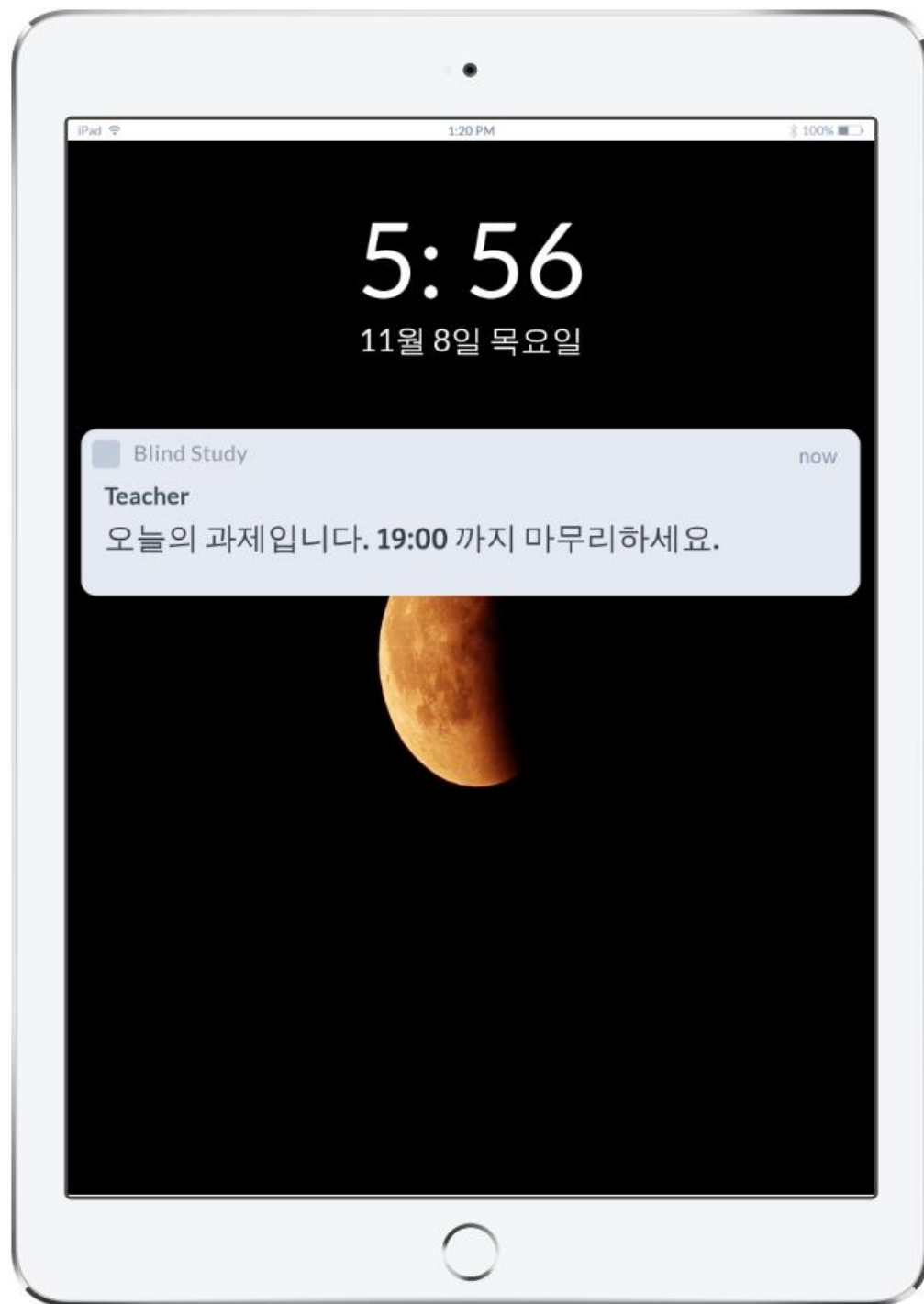
과제 제출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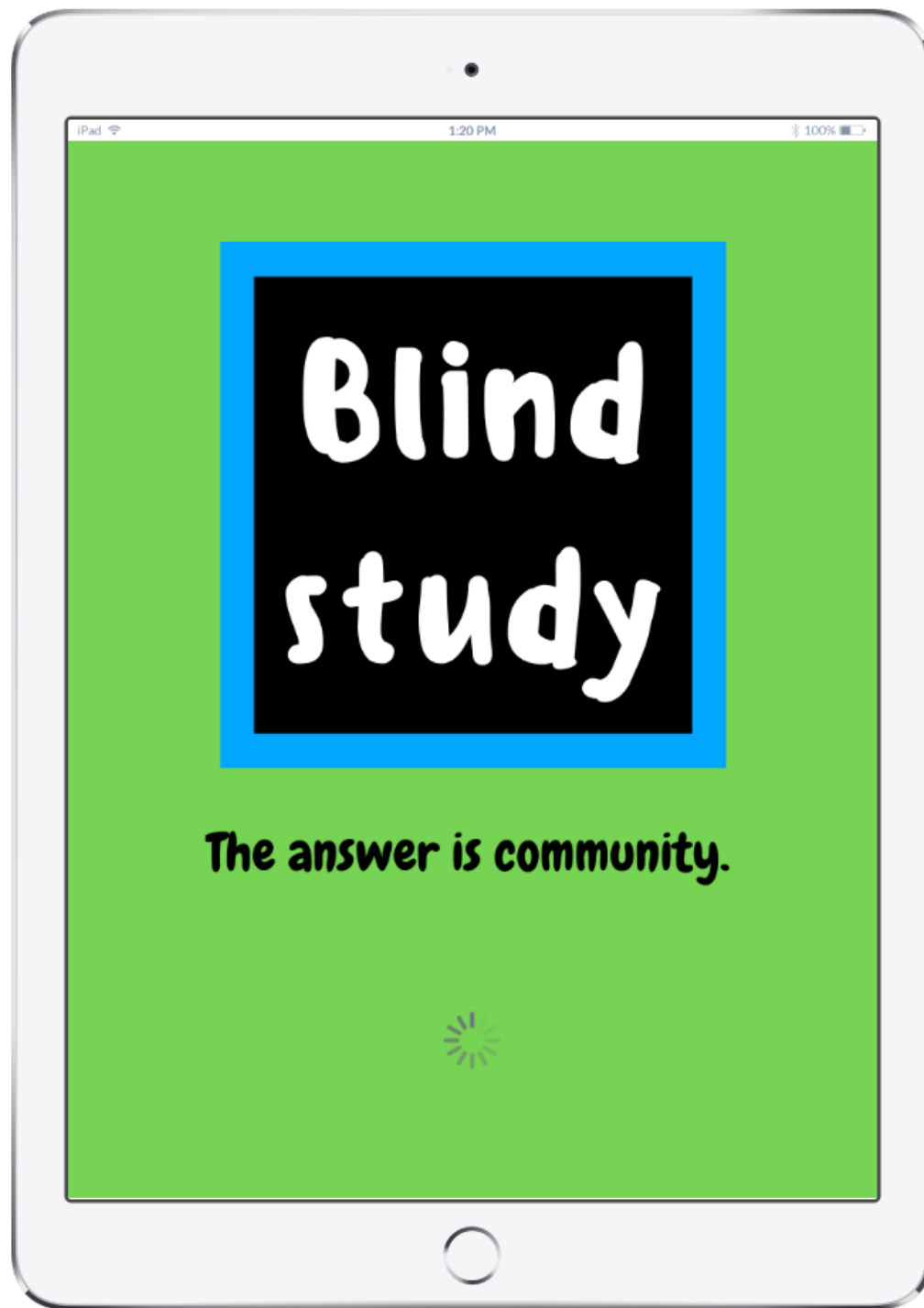
-첫번째 클릭시,
사진촬영 완료, 음성녹음 시작

-두번째 클릭시,
음성녹음 종료

-모든 화면 인터페이스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생각







Blind Study

11/8 Hom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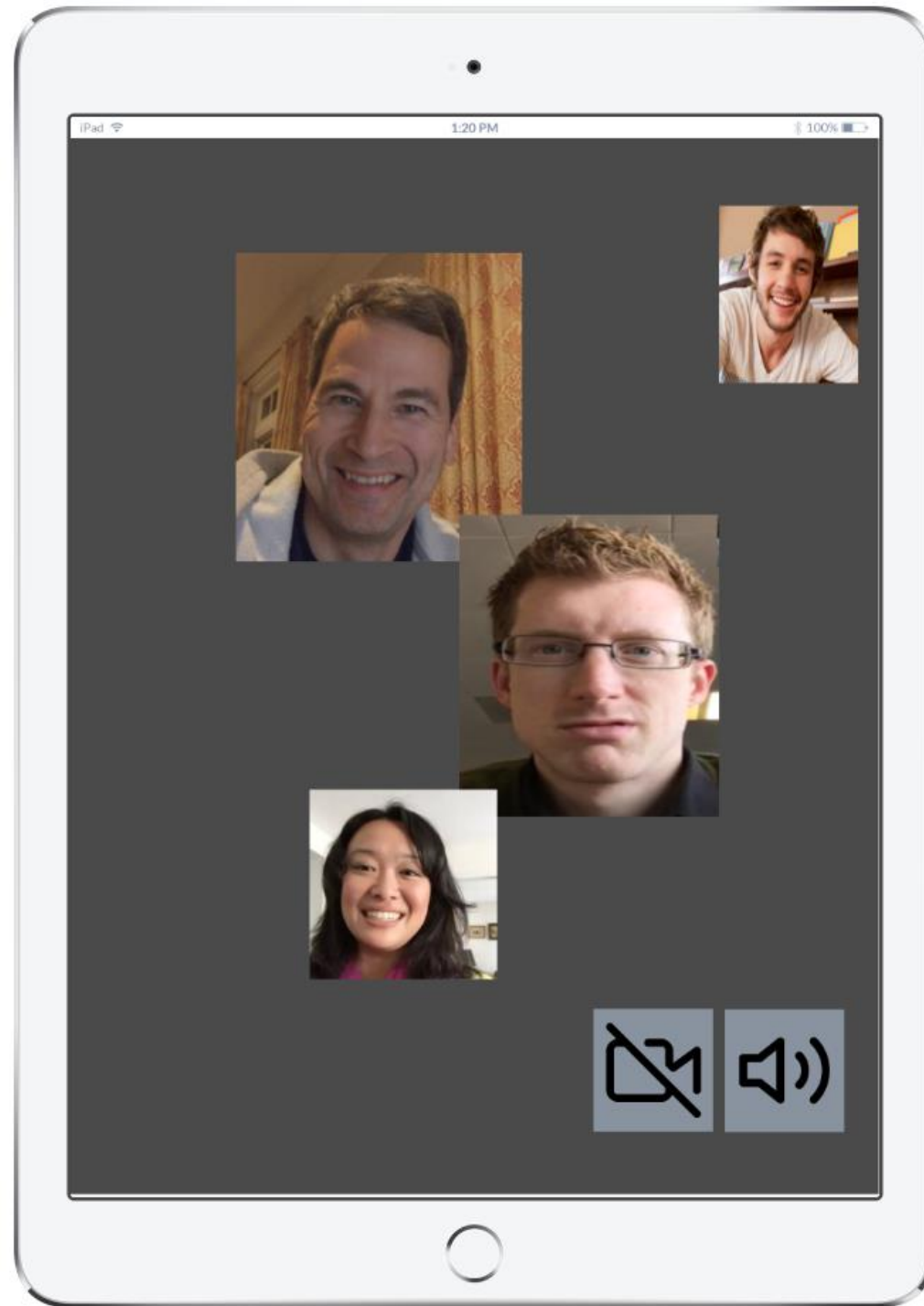
What do think about nuclear energy.
Search the internet and make your
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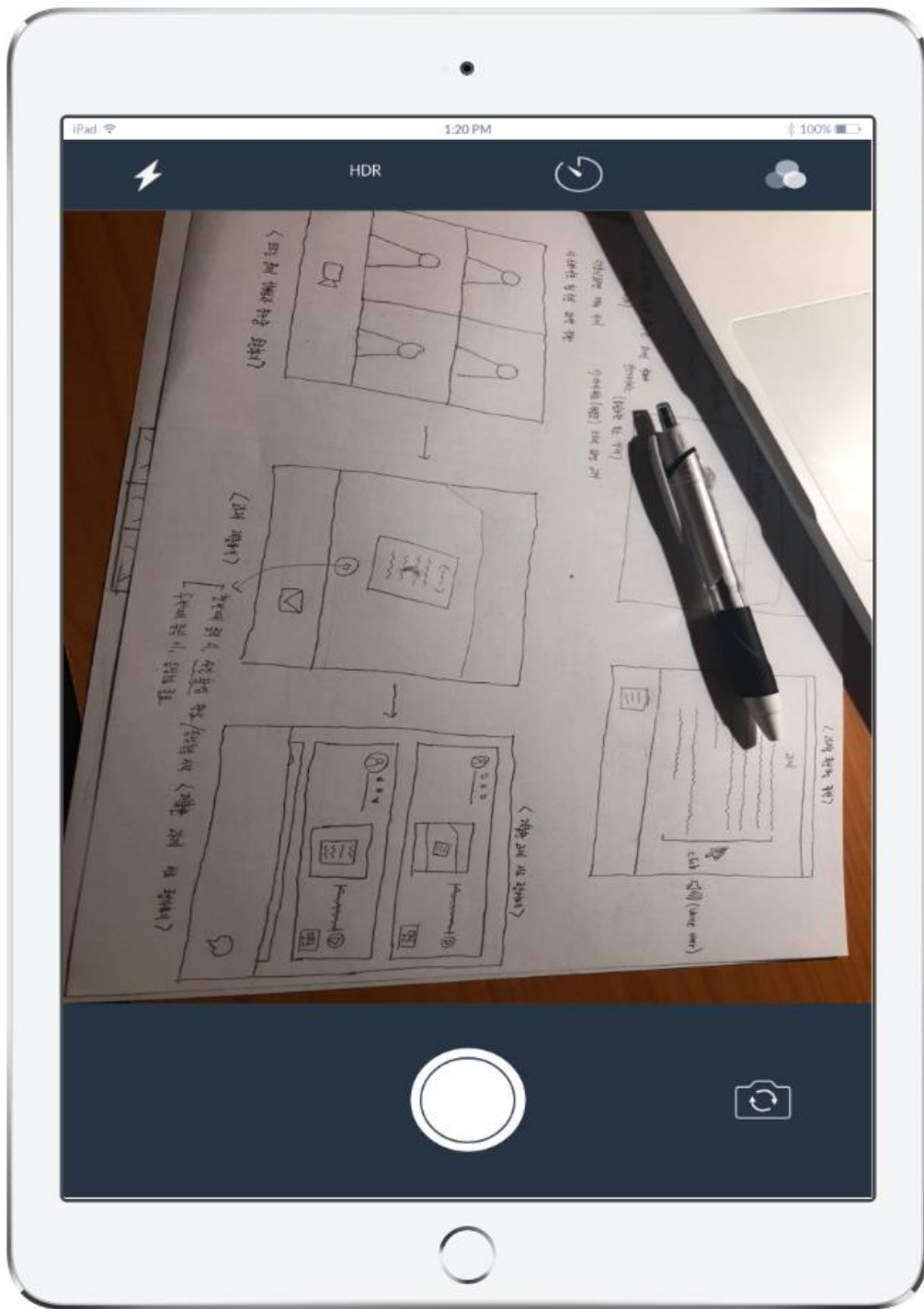
And Debate with other friends by
using face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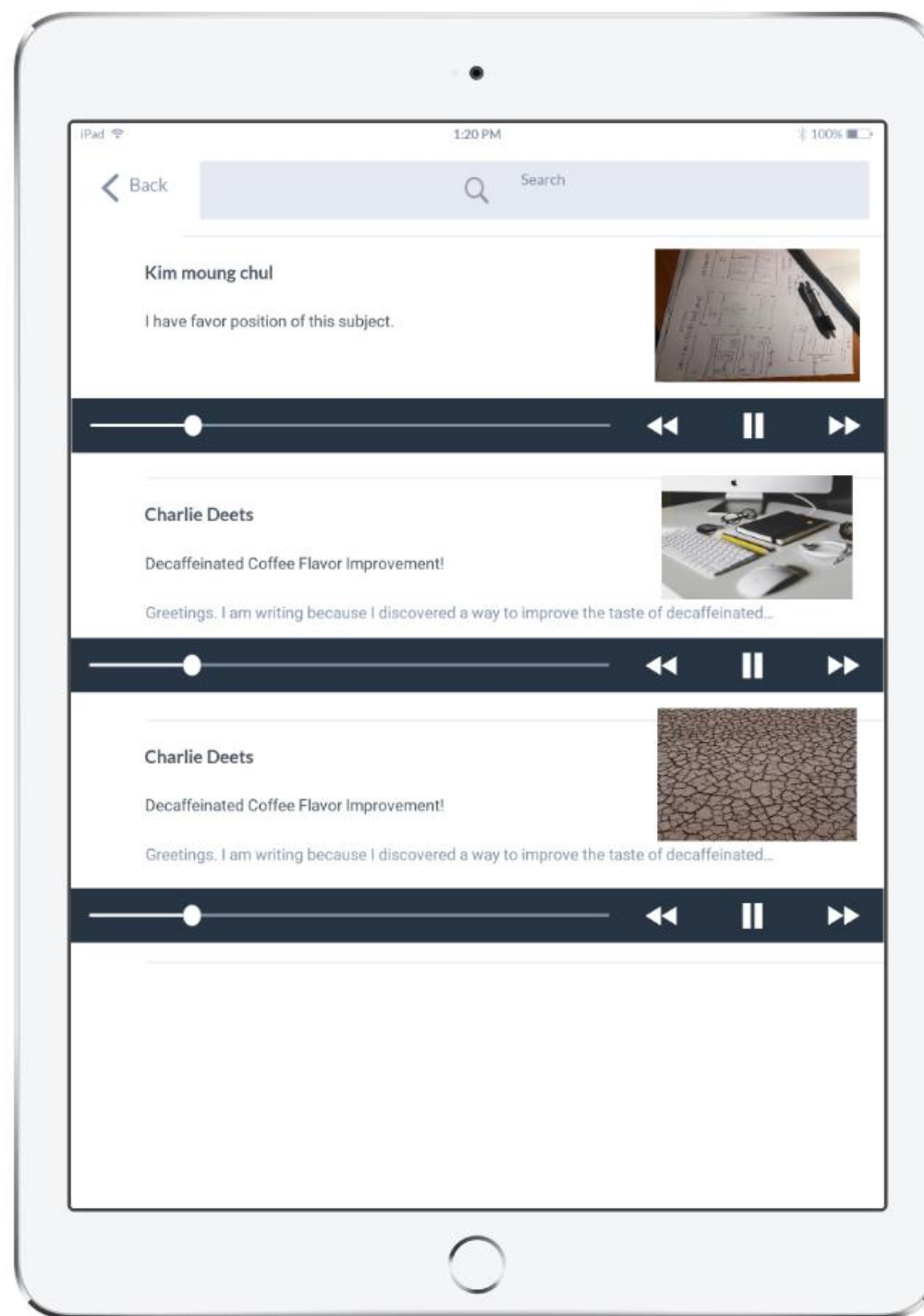
clean your subjects and upload
the file.

Lastly, you can see your freinds
position thourgh Timeline.

Then see you tomorrow!







프로토타입 도구

-MARVEL

-MARVEL 내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
(스마트폰 촬영, 게시판 틀 등...)

-어느 영역을 눌러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지 구현 가능

-스와이프의 기능을 구현 못함

-voice over를 활용한다는 것을 못 보여줌.

현재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한계점)

- 화면 인터페이스를 간소화?
- 프로토타입에 스와이프 기능과 과제 제출방법이 들어 나지 않음.
- 학생 구성원간 서로 평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지금까지 생각한 다양한 방안들이 실제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음 과제.
(프로토타입 상으로도...)

Q&A



THANK YOU

